

第273回國會  
(臨時會)

農林海洋水產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4月29日(火)

場 所 農林海洋水產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주요 농정현안 보고
2.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5. 서류제출요구의 건

審査된案件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 2.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강기갑·김낙순·김영덕·노영민·류근찬·박영선·신중식·유선호·이영호·장항숙 의원) ..... 2
- 1. 주요 농정현안 보고 ..... 6
- 1. 주요 농정현안 보고 ..... 10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11
- 3.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 11
- 4.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11
- 5. 서류제출요구의 건 ..... 11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권오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상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을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 직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전보되어 온 직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선 입법심의관을 소개합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9일 총선에서 당선되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중간 중간 전화로 축하드린 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몇 분 찾아뵈신 분도 있습니다만 다 찾아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18대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는 이제까지의 농어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계속해서 18대에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만 각 당의 공천 과정이나 총선에서 실패를 하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국회현장은 떠나지만 민생현장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재충전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농어민을 위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 보다는 더 넓은 민생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 농어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발생한 AI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고통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바로 방문하려고 했더니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다음에 와 줘야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는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각 당에서 현장 방문을 했고 또 당정회의를 해서 수습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따 장관께서 간단한 보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주 의제가 되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합의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범위의 확대에 의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 대책 수립과 국민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협상 등은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가시적인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서 농어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과 생산자인 축산농가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입장에 더 중점을 두고 상임위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야의 입장이 있지만 여야의 입장보다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입장에서 오늘 상임위가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상임위 진행은 어떤 여야 간의 구별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의 건강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운천 장관께서도 오늘 보고 시에 우리 농어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농어민들의 근심 걱정을 떨어낼 수 있는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우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위원장 권오을 의사진행발언 하기 전에 안건 하나 바로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주요 농정현안 보고고 제2항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2항부터 바로 처리하고 제1항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19분)

○위원장 권오을 국회법 제59조 규정에 의하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안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강기갑·김낙순·김영덕·노영민·류근찬·박영선·신중식·유선호·이영호·장향숙 의원)

(10시20분)

○위원장 권오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은 쌀시장 개방, 한·미 FTA 체결, DDA 농업협상의 재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쌀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양대 기둥인 축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철저한 집행 등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관리는 음식점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관장하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음식점 전후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가 단절되므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산지 관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물부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한·미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과 국내 시장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신설해서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쌀, 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에 대한 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둘째, 식품접객업 영업장 원산지 표시 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식품접객업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허위표시 등의 금지, 벌칙 및 과태료 등의 관련조항을 설치하였으며,

셋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취소요청 조항을 신설해서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이 개정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원산지 표시 관리 및 단속은 국내 생산·수입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농림수산물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농축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농축산물의 관리와 단속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원산지 관리·단속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식별 기법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생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해서 원산지 식별에 대한 기법과 전문성이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서도 단속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한미 양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를 확충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 사항을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중복 등으로 인한 집행상의 약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법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대체토론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 간에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논의가 많이 있었었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신중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위원장 권오을** 예.

○**신중식 위원** 우윤근 위원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관련 행정부 측에서 답변해도 되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전에 농협에서 정운천 장관 임석하에, 이양반 띠 두르고 요란하던데 우리 야당에 와서는 결사반대한다더니 며칠 전에는 정운천 장관 휘하에 가서 또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자원봉사자들 1000명을 동원해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근거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현재 우리 농관원에 2만 7000명이 명예감시원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식약청의 단속반과 함께 식약청법에 준해서 식약청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단체하고 또 우리 품질관리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그 단속권한을 이번에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우윤근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의하면 식약청에 음식점에 관한 단속권한인 법적 근거가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아마 보조적인 역할을 현재는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입법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그렇습니다.

○**신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원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상정하겠다, 이게 참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농수산식품부죠, 정확한 명칭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장관님 청문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산물 쪽은 지금 빠져있다 이 말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조경태 위원** 어차피 이 법을 만들려면 비교적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수산물도 많이 수입되고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이번에 식당까지 단속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전환 내지는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 위원님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번에는 수산물 쪽은 빼고 하겠다 이겁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수산물품질관리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하고 합해서 통합법으로 가서 그러한 등등을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정부입법으로라도 빨리 수산물 쪽에도 단속 대상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빨리 좀 해 주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하여튼 적극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 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조금 전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합치겠다고 하는데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산물과 농산물에 분명히 특이성이 있을 건데 농림수산식품부로 됐다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합친다라고 하고, 즉답해서 지금 합친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차제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림부장관님께서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초대장관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차관의 업무가 수산입니까, 농업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1차관은 농업 쪽이고 2차관이 수산 쪽입니다.

○**이영호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문성들이 다 결여된 것 같아요. 2차관님께서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축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던 말이에요. 장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2차관이 축산하고

수산, 유통까지 포괄하고요.

○이영호 위원 축산, 유통까지 담당을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이영호 위원 그렇다라고 친다면 지금 조정태 위원의 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여의도 식당가에서 횡집을 샀을 때 몇 %나 수입산 수산물 이, 횡감이 우리의 식탁에, 장관님의 밥상에 올라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일단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영호 위원 아니, 장관님 정도 되면 적어도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게 수입산일까 국내산일까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항상 관심……

○이영호 위원 그러면 2차관이 전문이라면 2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제2차관 박덕배 참치횡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거의 99%고요. 그 외의 일반음식점도 음식점에 따라서 좀 차별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위원 많은 부분이라면 몇 % 정도나 되겠어요, 수치로 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제2차관 박덕배 음식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영호 위원 전에 저하고 같이 간 적이 있지요? 그때 몇 % 정도던가요? '리틀도쿄'라고 내가 최대한 이름을 해야 되겠네요. 렉싱턴호텔의 일식집 정도에서 나오는 것 정도가, 몇 % 정도여서 그때 재정경제부장관하고 있을 때 제가 지배인 불러서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거의 90% 이상입니다. 요즘 그 비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2개월 된 행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장관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단속이 우리의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수산물 품질 관련, 농산물 품질 관련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하여튼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러한 일관시스템으로 앞으로 정책을 꼭 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은 앞으로 입

법……

○이영호 위원 장관님, 그냥 질문 그만하고 이 정도에서 말려고 했는데요. 구조적으로 미국에서, 아시잖아요. 도축업자들로 해서 소를 수입을 해서 2단계까지 오면 냉동·냉장 상태로 해서 해체 작업은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품관리체제하고 우리의 이력추적제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본 질문 때 좀더 자세한 질문을 하겠습니까마는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2단계에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광우병으로 그러니까 치매병으로, 사망자의 15% 정도 이상이 광우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도축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논문까지도 있고 움직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이러한 발상들을 장관님이 초대장관 돼서 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좀더 비약을 합니까? 이따 나중에 더 자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이따 질의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님.

○강기갑 위원 장관님, 지금 30평 100㎡ 이상만 적용되는 거지요, 품질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러면 그 외에 30평 이상이 전체 음식점의 몇 %나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30평 이상은 6월 22일부터 발효되고요, 지금 현재 한 4만 2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전체 음식점의 몇 %냐고요, 30평 이상짜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전체 음식점은 소고기 말고 한 58만 개가 있는데 지금 소고기만 파는 음식점은 약 한 40%……

○강기갑 위원 40%도 안 되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강기갑 위원 전체 개수로 보면 한 28%밖에 안 되고 학교 급식소라든가 대형 급식소 이런 데 지금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학교 급식소나 대형 급식소에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일단은 현재 급식

(10시37분)

소나 이런 정육점 등은 하고 있고요.

○강기갑 위원 정육점이 아니고 직장이나 큰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원산지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법에서? 그것도 지금 모르고 앉아 계세요?

○농림수산물품질부장관 정운천 아니, 지금 30평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

○강기갑 위원 아니, 제 질문은 학교 급식소도 30평 이상짜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체나 대형 급식소도 30평 이상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품질관리원에서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고요?

○농림수산물품질부장관 정운천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식약청의 위생관리에 포함해서 단속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기갑 위원 아니, 식약청에서 그 단속을 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도 나가서 하는데 학교 급식소 30평 이상짜리 또 대형 급식소, 직장이나 기업체 이런 데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묻고 안 있습니까?

○농림수산물품질부장관 정운천 아니, 현재까지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지요?

○농림수산물품질부장관 정운천 예.

○강기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가 한 달 이후에, 5월 이후에 바로 들어오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맞바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래 놓고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을 강기갑 위원님, 이따 본안 심의할 때 말씀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농정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우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권오을 예, 말씀하세요.

○김우남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발언에 소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오늘입니다. 2008년 4월 29일 일정에 추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각 당에서도 사전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간사 간에, 홍문표 간사가 1시에 지역일정 마치고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시면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강기갑 위원 위원장님!

○김우남 위원 강 위원님, 제 얘기 이것하고 말씀하시지요. 연장해서 말씀을……

○강기갑 위원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권오을 먼저 김우남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관례를 보더라도 여야가 어떤 이념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적도 없고 특히 국회 청문회의, 어떤 특위 차원의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인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의 임무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또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님 스스로도 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봐서 오후에 가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강기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1. 주요 농정현안 보고

**○강기갑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쇠고기 협상은 정부 측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 국민적 사안과 우리 검역주권 또 축산농민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가지고는 이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확실한 질책과 또 검증·견제·시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보건복지위원들도 들어오시고 통외통위 쪽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대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여당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저 눈을 감고 청문회를 안 하려고 그러합니다. 이게 정치공세라고 그러는데 국회가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하자 하는 것을 정치공세라고 하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전연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청문회를 안 할 수 없다, 최선책이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의 홍문표 간사님이 안 나오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17대는 이번 한 달입니다. 이것 뭐 어물쩍어물쩍하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통외통위에서는 지금 청문회를 잡아 놓고 그 일정을 하고 있는데 통외통위 청문회하기 전에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와 연계되어서 이번에 이런 협상을 한 것인지 그 과정이나 절차나 내용·결과 등 해서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오늘 위원들이 다 오셨는데 여기 여당 간사가 안 오셨다고 해 가지고 1시로 뒤로 미뤄 버리면 언제 소집이 돼서 청문회 결의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 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 오늘 결의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나라당의 위원님도 몇 분 오셨고 하니까 결의를 해서 청문회 일정도 잡고 확정하기를 제가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을**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일 가운데 특히 뼈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는 과거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거의 여야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합일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대신 털어 드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것보다는 '특'자를 붙인 활동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특검을 주장해서 웬만한 건 특검 아니면 거의 불신을 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요구할 때 진정 청문회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협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또 협상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농민들을 생각한 규명과 또는 대책을 세우자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칠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양당 간사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청문회는 그야말로 듣는 시간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마치 수사의 현장처럼 항상 본질을 캐기보다는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기대 이런 발언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농민들을 위한 건지 정치인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것인지 혼동이 될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을** 우윤근 위원님 잠깐만요.

김우남 위원님, 강기갑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 개최가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문회라는 것은 각 당 간에 일단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 홍문표 간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협의 후에 통상적인 상임위원회로서 모든 진상이나 대책을 세울 것인지, 청문회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우남 위원이나 강기갑 위원님께서 우리 홍문표 간사가 오후 1시 이후에 여기 도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재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계진 위원님께서서는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같이 논의를 하고 결론은 오후에 내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윤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진 선배, 재선을 축하드리면서 또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짧게 반대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물론 특위 또는 청문회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상임위로서는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협상 관련자들을 통상 상임위 차원에서 부르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그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소위 상임위 차원의 관련자들을 넘어서는 협상 당사자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청문회 절차에 따른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청문회 요청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것은 여야 간의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농림수산물위원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협상 차원으로 미루기보다는 이

것이야말로 우리 소관 상임위 본연의 임무 수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오후 1시라고 합시다마는 그게 어떻게 될지 대단히 불투명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미 쇠고기 협상은, 오늘 현안보고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책임을 또는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또 변명으로 일관되는 이런 현안보고는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오후 1시에 협상을 보겠다는 것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이게 정치협상이나 여야 간사 합의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또 위원장님께서서는 그간에 늘 농해수를 잘 이끌어 오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니라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이나 우윤근 위원님 그다음에 강기갑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각 당 원내대표부하고도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각 당 간사 간에 사전조율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증인 참석 문제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같은 내용입니까?

○조경태 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위원장 권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과거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데요. 뒤바뀌어 있다 해 가지고 입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저는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 모두가 한미 쇠고기 문제로 해 가



지고 들끓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를 안 한다면 뭐 가지고 청문회를 합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권 위원장님께서서는 여당 간사가 오셔야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우리 과반수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 간사께서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여기서 바로 청문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1시에 다시 속개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 위원장님께서 지금 바로 청문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위원들에게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을 이강두 위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李康斗 委員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 특히 농민들, 축산농가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국회라는 것은 국회절차법이 있고 또 관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국회가 뭐 필요할 거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벌써 공청회를 통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고 또 토의도 해 왔습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2000년대부터 실시가 됐던 사안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고 의논을 해 가자는 것인데 이걸 무시해 버리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버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자 이것은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그동안 지켜 왔던, 여야가 없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토의해 왔던 전통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서, 1시에 간사들이 와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처럼 보이는 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지금 현재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짧게 짧게 발언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다 드릴 테니까 그대신 시간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님.

○김낙성 위원 김낙성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오늘 농림수산물위원회가 열리는 주 목적이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이것을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여당 간사가 와 가지고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처리한다 이런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족수가 채워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전에는 편법으로 의결도 바뀌서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 현재 다 쳐다보고 있는 현안 문제를 제쳐 놓고 다른 사안부터 다룬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의결을 하고 다른 안건을 다루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당 간사 한 사람 안 왔다고 자꾸 미루지 말고 여기 있는 위원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을 더 발언하실 분 계세요?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관님, 광우병 걸린다면 치사율이 몇%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치사율, 광우병이 걸렸다 그러면 치사율이 얼마지요? 치사율 100%입니다.

광우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고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광우병이 충분히 더 만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국회의 관례가 어쨌든, 지금 과거 관행이 어쨌든 이걸 따질 겨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리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도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위원장 권오을 의견이 같은데 잠시 김우남 간사님하고 김낙성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십시오.

(위원들 간 논의)

잠시 각 당의 간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현재 야당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자고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단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청문회를 재론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로 합의가 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후 2시에 속개하기 전에 사전조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2시까지 일단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김우남 위원님이나 홍문표 위원님, 김낙성 위원님, 강기갑 위원님, 만약 안 나오시면 이계진 위원님이 이 청문회 안건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셔서 오후 상임위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각 정당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일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애로점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장기적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국민 위생·건강 문제, 아울러 국민의 어떤 소비자 후생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고 그때까지 각 당 간에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아까 법률안 통과시킬 때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된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우남 위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

의안을 내 주셨고 점심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 간에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최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AI 문제라든가 다른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관께서 보고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다음 아까 문제 제기됐던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지요, 김우남 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니요, 조 위원 오시면,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니까.

### 1. 주요 농정현안 보고

○위원장 권오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농정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운천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어업과 농어촌 그리고 농림수산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지난 2월 29일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 취임하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취임 이후 첫 상임위에 참석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두 달 동안 1차 산업에 머물던 농업, 임업, 수산업을 2·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개방에 대응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 개편 및 지원체제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돈 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군 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농어촌 뉴타운, 농수산물 유통고속도로를 미래전략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업인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기본정책들과 사업들도 조금도 소홀

함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된 사업들은 수요가 있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시군부터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일선 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정책 개발과 시장·군수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장·군수 농정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늘 오후에도 시장·군수 50명을 모시고 3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예전과 달리 4월에 AI가 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역활동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과 AI 방역에 애쓰신 축산농가와 공무원, 군장병 등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20건에 대해서는 매물처분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시도, 시군과 함께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 이후 전 국민이 합심하여 복구에 노력한 결과 기름 오염이 많이 제거되어 지난 4월 18일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지역 어업인 및 수산물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농림 분야와 수산 분야 간 인력 교차 배치, 조직과 기능의 융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균형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개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과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기획조정실장 보고받기 전에도,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안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14시34분)

○위원장 권오을 김우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청문회 실시의 건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심시간에 각 당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하루 청문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 4.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 5. 서류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권오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청문회 실시하고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청문회는 5월 7일 오전 11시부터 하루 실시하기로 하고 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서류 제출 요구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청문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실시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청문회 관련해서 장관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는 나중에 서류 제출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요, 오늘 보고할 때는, 쇠고기 관련된 문제는 7일 날 청문회 때 일괄적으로 보고받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수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AI 발생상황 및 대책,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 어업인 지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I 발생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지역에서 첫 발생 후 전북 정읍·순창, 전남 영암, 경기 평택 등에서 총 20건이 발생해서 7건을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발생지역 20곳에 대해서는 매몰처분을 완료하였고 현재 침출수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매몰처분 조치를 완료하였고, 그 외 민·관·군 합동으로 매몰처분, 이동 통제 등 원활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몰처분에 동원된 연인원은 4월 28일 현재 약 1만 4278명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 농가와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몰처분 보상금 435억 원을 배정하여 농가에 12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외 AI 방역조치지역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근거나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매몰처분 장소의 사후관리 및 위험도가 높은 곳의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처분 장소 내 간이 집수조 외부에 톱밥이나 생석회 뿌리기, 기타 주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농협 등의 소독장비를 총동원해서 닭·오리 도축장이나 밀집 사육지역 등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닭·오리 농장에 대한 검사 및

비상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9개 수의과대학, 검역원, 시도 시험소, 방역본부와 협력하여 오리농장 260개소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농·축협 등 축산단체 등이 분담하여 농장 전담제를 도입하고 전국의 닭·오리 농장에 대한 1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근본적인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연중 발생 가능성에 대응해서 상시 능동적인 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본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도의 가축방역기관도 악성 가축 전염병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닭·오리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토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지역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경영 안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정된 매몰처분보상금이라든지 생계·소득 안정자금 지급을 독려하도록 해 나가겠고 이동제한지역 내 체화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에 대해서는 수매 당일 전 주 산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매한다든지 또는 시가와 출하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AI 발생 시군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토록 하고 매몰처분 및 이동제한지역 내 직접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이자도 감면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축입식자금을 지급하고 이동제한지역 내 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범위의 확대 및 전국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긴급 방역비도 지원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소비 활성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AI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홍보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을 비롯하여 정부부처나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연계해서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 각종 단체에 소비 확대 협조를 요청하고 TV나 신문 등에 소비 확대, 안전성을 광고하고 오리데이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소비 촉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는 AI 관련 피해농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위원** 이거 참고하라고 하지 말고 설명을 전부 해요. AI 관련 피해농가 지원 내용.

○**농림수산식품기획조정실장 김재수** 특히 AI 관련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피해 내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매몰처분보상금은 매몰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 시세의 100%를 국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계안정자금은 매몰처분 농가에게 수익 재발생 시까지 생계안정비를 보조를 해 주고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절반씩 해서 농가의 평균 가계비의 3~6월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달리해서 14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관계와 오리는 6월분, 육계는 3월분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이동제한지역 내 입식 금지에 따른 피해 보조도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 제한 전 출하 후에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하지 못한 농가라든지 출하 지연에 따른 추가 사육비용이 발생했다든지 상품성이 손실된 농가나 출하 지체로 인한 손실에도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입식자금은 매몰처분 농가에서 추후에 가축 입식 시에 필요한 자금을 촉발기금에서 용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AI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이나 부화장, 가공장 등 업체에 대해서 경영자금을 용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중단 기간 동안의 경영비를 고려해서 저리로 용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매 지원입니다. 수매 지원은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 및 출하 차액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 면제는 이동제한지역 내의 발생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도래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필요한 이자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발생 지자체에 대해서 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

염 사고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서 충남, 전남·북 연안 및 해수욕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안선 충남·전남 일대 280km, 도서 101개, 양식장 3만 4000ha 및 해수욕장 15개소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및 전남 3개 군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재 해안 방제는 태안군 만대부터 파도리 구간, 도서는 충남 22개 지역에서 방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연인원 178만 명이 동원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방제활동을 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업이 중단되어 있던 태안군 연안의 어선어업이 지난 4월 18일자로 조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어류 등 이동성이 있는 수산물은 대부분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업 재개를 하였습니다. 다만 인체 위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계속 조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조업 재개로 어획되는 수산물은 지정된 위판장 7개소에서 수산물검사원 등의 직원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후에 유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어업인의 생계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4만 2000세대에 대해서 긴급생계안정자금 1171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특별영양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도 상당부분 감액을 해 온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피해우심지역의 오염된 굴이라든지 양식시설의 조기 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자로 농업재해대책비에서 135억 원을 규정한 바 있고 향후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7월 초 이전에 조기에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미지급 방제인건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방제업체의 인건비 청구를 지원하고 보상기관에도 신속히 사정을 해서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조업 재개 시에는 지정 위판장 외에 태안 지역의 항·포구에도 어촌지도사나 수협직원 등을 활용해서 관능검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업을 제한 중인 패류의 경우에는 추가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조업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태안 지역의 수산물 시식회라든지 낚시대회,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물부의 조직 및 기능 개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어업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진흥 정책의 저희 농림수산물부의 이관에 따라 농림부가 농림수산물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수산물부의 조직은 2실, 1본부, 3국, 7관, 4단, 56과 및 10개 소속기관 체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산업진흥법이 6월 28일자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식품산업 진흥업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진흥 정책이 이관되고 새 정부에서 농어업의 성장동력으로 식품산업을 역점 추진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증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 문제는 관계부처 간의 이견과 여론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과 행정문화 쇄신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분야 인력간 융합이 되도록 기존의 인사 관행도 혁신적으로 개선했고 쌍방향 희망보직을 가미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부처 출신을 교차로 배치하는 등 인력간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 업무 30% 줄이기를 통해서 업무를 간소화하고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고객들을 자주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인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고객중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업인단체에게 농림수산물부의 정책보좌관 직위를 개방하고 농어업인 단체의 정책제안을 고객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하게 수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71개 단체에서 현재 514건의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국장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중간 추진상황을 장관님이 답신을 해 주고 그 외에 접수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타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서는 개편된 농림수산물부 조직의 표를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실시한 원산지합동단속반 발대식 개최 성과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식품부, 농관원, 식약청,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 농협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1000여 명이 모여서 원산지합동단속반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동 행사에서는 한우산업 희망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발대식이 주요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었고 이제 한우농가도 투쟁보다는 한우산업을 희망을 찾아 가자는 희망선언을 채택한 것이 되었고 한우산업을 경쟁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 관련부처도 벽을 허물고 공동 노력을 하자는 새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와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가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서 농식품부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고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위원 위원장님, 현안보고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권오을 말씀하세요.

○신중식 위원 김재수 실장, 미국에서 한 3년여 계셨던가요?

○농림수산물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예.

○신중식 위원 미국에서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성근하게 일하셨던데 정운천 장관이

복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초선이고 잘 모릅니다만 4년간 계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있었는데 실·국장들 또 차관보, 능력 있고 아주 강직하고 당당한 분들이 되신 것 같아요.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김재수 실장, 미국에서 오래 계셨는지 모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관행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있었고 인사이동도 있었는데 국장급 이상 프로필은 다음에 꼭 제출하도록 하세요.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예.

○신중식 위원 프로필을 제출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선배님들, 동료 위원들의 협조로 광우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 구제역이랄지 브루셀라랄지 AI랄지 각종 질병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공익수의사법을 여러 위원님 협조로 통과시킨 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AI도 발생하고 브루셀라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초기 대응은 뭐 신속히 잘한 것 같아요, 예방 측면에서 사후에 조금 문제된 점이 있었긴 있었는데.

공익수의사가 지금 각 시군에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몇 명……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지금 123명……

○신중식 위원 농촌 지역에는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의사들, 사법시험 합격자들만 배치시켰는데, 공익수의사들도 또 이제 거의 배치시켰는데 내년도에 일부 증원 계획이 있나요?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매년 150명 수준에서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중식 위원 각 읍·면에 배치 상황이 지금 123명 정도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예.

○신중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2차관 계신가요? 제2차관이 수산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예.

○신중식 위원 제2차관님 계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신중식 위원 왜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시장·군수……

○신중식 위원 행사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예.

○신중식 위원 오늘 축산 관련만 있는 줄 알고

잠깐, 농림 분야만 계시고 잠깐 비우신 모양이구먼요.

그런데 오늘은 농림해양수산식품부 종합적인 현안보고지요?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예.

○신중식 위원 그런데 최근에 두 유명 배우 이름을 따 가지고 인구에 회자되고 이래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여기 수협은 보고에서 누락되었는데 수협에 이번에 경제대표이사가 교체되었는데 그런데 수협중앙회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있습니다.

○신중식 위원 선출은 조합장들, 이사들이 하지만 지휘감독권이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있습니다.

○신중식 위원 그런데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정권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육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인사에서.

“수협 ‘뇌물 관료’ 임원 추천 논란, 인수위 출신 박규석 전 차관보 추천 배경 뒷말 무성, ‘검증 안 돼, 기준 공개해야’ 반발”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사면복권 되었나요? 사면복권 되었으니까……

○농림수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사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99년도 어업협상에 쌍끌이 때문에 그때 참 문제가 많았어요. 일본은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기본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때 협상에 좀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놀란 것 또 하나는 원양어업 지원자금을 특정 업체에 배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요. 그런데 사면복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여기 한나라당 계신 분들, 여기 민주당, 여기 자유선진당, 민노당, 전체가 금고 이상은 대상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땅 투기도 아니고 무슨 논문 표절도 아니고 여기는 비리라고요, 비리. 어떻게 이런 분이 수협 경제대표가 될 수 있나요? 투표 결과도 상당히, 반대가 34표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런

분이 어떻게 추천되었나?

차관님이 안 계시네요. 그것 장관님도 모를 거예요, 아마. 청와대에서 적당히 했을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관두세요. 제2차관이 답변을 이 다음에 하든지 이따가 들어오시면 서면으로 경위를 보고해 달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중요한 문제를 보고에 누락시킵니까?

○농림수산물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 7일날 우리 청문회도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료입니다, 자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한심해서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농수산물부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해 가지고 놀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대비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다고요.

2006년, 2007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 현황을 자료로 보내라고 했더니…… 농림부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정확한 자료파악을 위해 주한미국 대사관에 자료를 요청하였음’ 이게 답변자료예요. 농림수산물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이런 사람이 국가 녹 먹을 자격 있어요? 정의만 있으면 전화로라도 다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다 주고 ‘정확한 자료파악을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자료요청’ 이게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자료수준입니까?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이 최근, 오늘인가 어제 되고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농림부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해서 붙여 가지고 보내지를 않는 거……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하여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많은 자료요구가 갔을 텐데 청문회 때 정말 이따위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면 그때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장관께서 직원들 기강확립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올려오는 답변서를 한번 언제 샘플 몇 개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앞에 것은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국회가 요구하면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주고 그 자료로서 설명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확 던져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마려면 마시오’ ‘내 배 짜라’ 이것 안 된다…… 아까 보니까 퇴출공무원 농촌진흥청에서 명단 한 것 있던데 이런 친구들 다 퇴출시켜야 된다 이거야.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어젯밤과 아침에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28일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한 자료인데 뭘……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인하고 기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가 괴로워진다는 것을 각오하세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권오을 예.

○강기갑 위원 실장님,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투쟁보다는 희망을 찾아나간다고 결의를 했다 그런데 지금 쇠고기 개월 수까지 다 받아 놔 놓고, 해제를 해 줘 놓고 30%도 안 되는 식당에 원산지를, 품질관리원하고 해서 아무튼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식약청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감시단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제 좀 강화하는 작업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 놔 놓고는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투쟁보다는 희망을 찾아나간다고 보고를 방금 그렇게 하셨지요?

○농림수산물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예.

○강기갑 위원 지금 한우농가들이 원산지 표시는 전체 식당의 30% 채 안 되는 거지만 그거나마 감시라도 좀 해 가지고 우선 제대로 원산지 표시도 하자 하는 거고, 쇠고기 협상에 관련된



내용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사후대책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한데 그것 원산지 표시 공동 실시하는 것 그림 하나 갖다 놓고는 앞으로는 투쟁보다는 희망을 찾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국회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해서 됩니까?

○농림수산물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위원님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기갑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빼라고요, 변명하지 마시고.

○농림수산물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지금 한우농가들이 이런 보고를 들으면, 언론에서 들으면 또 농림부에 우리가 놀아났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전부 격앙되어 있는 판인데?

○농림수산물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앞으로 한우농가가 그러면 쇠고기 협상 정부가 한 것 합의해 주고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강화만 하고 희망만 찾아나가자, 합의해 준 것처럼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림수산물부기획조정실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그러면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한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드릴 테니까 부족하신 분은 나중에 시간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김우남, 홍문표, 최규성, 김낙성, 이계진, 조경태, 이강두, 신중식, 정세균, 김형오, 우윤근, 이영호, 김영덕, 서재관, 강기갑 위원 이렇게 합니다.

최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위원 AI 발생 관련 초기 방역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김제 용지면 산란계 사육농장 지역에서 AI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됐고 4월 2일 일차적으로 의사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있고 또 일곱 군데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운천 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2일 정오경에 김제지역 AI 발생 관련해서

저와 전화 통화한 기억나시지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최규성 위원 당시에 본인이 선거 중이었습니까마는 김제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최종 판정 이전에 즉시 확산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이동제한조치 등 초동대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기억나시지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기억납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게 이동제한조치를 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AI는 지금 세 번째 되기 때문에 SOP 과정이 제대로 매뉴얼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장이 책임자가 돼서 바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래요? 초기에 문제가 의뢰된 게 3월 29일이죠? 김창섭 과장님, 맞지요?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축산정책단동물 방역팀장 김창섭 4월 1일……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신고 받은 게 4월 1일입니다.

○최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닭이 죽기 시작한 게 3월 29일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게 4월 2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되고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면 이 AI가 발생되고 나서 확인되는 그 사이에 닭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의뢰가 됐을 때 이동제한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김제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동제한조치가 철저히 안 됨으로써 닭이 빠져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고 우리가 다니고 이렇게 해서 병이 많이 확산된 부분도 있지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그렇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지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최규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제한조치에 대해서, 특히 제가 시청에서 진행된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했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유치장에 유치해라든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을 보면 방역망을 빠져 나가서 닭이 많이 유출이 됐지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최규성 위원 그것 때문에 확산된 부분도 있잖

아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정운천 그렇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주의 를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보면 이 병의 근 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13개월 전에도 이게 발생을 했고, 그때는 온도가 20도만 넘으면 안 될 거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는 20도하고 관련도 없고 그다음에 김제에서 발 생했고 정읍에서 발생하고 다른 데서 발생한 부 분들이 직접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잠복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전혀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대체 뭔지도 제가 모르겠고, 원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대 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뭐가 있고 김제에서 발생하고 정읍에서 발생한 것이 연관이 있는 건 지, 타 지역 발생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대책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강문일 우선 위원님 지 금 말씀하셨던 유입원과 전파에 대해서 역학조사 받들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고요. 유전자분석이나 병원성실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 들이 최후에 종합보고를 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궁금해 하시는 전체적으로 근본 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오리로부터 닭으로 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 들이 오리농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전국적으로 검사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9개 대학에서 한 7만 수에 대한 유경오리에 대 해서도 4월말까지 샘플링해서 5월달에는 결과를 내 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래요. 우선 이 병의 발생원인 그다음에 잠복, 치료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전 혀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이고 유일한 처방은 방역, 차단, 살처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살처 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 해서 빼돌리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우선 최 초의 발생보고가 되면 한 사나흘 걸리니까 그 전 에는 일단 이동제한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초 기에 우리가 500m만, 원체 닭이 많다 보니까 그 령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원칙에 따라서 과 감하게 3km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보상입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제가 죽 보고를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계란의 개수 문제 있잖아요. 개수 문제 제가 여기저기에서 받아본 것으로는 대한양 계협회에서 산란계 능력 검정한 것을 보면 320개 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보고는 270개 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한 근거가 뭔지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보상을 좀더 여유 있게 주고 그렇게 해야 향후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협력 을 한다는 거죠. 닭을 다른 데 빼거나 이러지 않고 별로 손해 안 난다 그러니까 모두 살처분하는 데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서 양계협회의 산란계 능력검정성적에 32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10%를 빼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270개는 조금 거시기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정운천 우선 이번 보상은 그러한 위원님 말씀과 함께 좀더 후하게 해서 이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하면 다른 데로 빼고 이럴 수도 있기 때 문에 그것 고려 꼭 하계끔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게 후하게 해서, 아직도 발 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살처분하는 데 협조하고 닭을 다른 데 안 팔아먹 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하면서 마치 겠습니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정운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 김낙성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방역예찰을 계 속 해 나가지 않습니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김낙성 위원 그런데 매번 이런 가축질병이 발 생이 되면, 오늘도 보고서에 보면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서 근본적인 상시방역시스템을 구 축한다’ 이렇게 보고는 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 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지켜진다고 생각합니 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정운천 4월 14일 평택에 발병이 돼서, 과거에는 2월 또는 12월에 발병해 서 3월에 끝났는데 이것은 4월에 돼서 이것은 근 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9개의 수의과

대학에다가 과거에는 혈청 검사만 했는데 바이러스 검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2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한다, 지금 예측을 해 보는데 1년에 한 200~300억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그리고 이미 용역을 썼고요.

이제 이게 평택이 되면서 오염이 아니라 또 새롭게 새롭게 된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은 완전히 결론이 내려면 한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상시검역체계, 예찰체계를 구축하자 그런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성 위원** 또 이게 현장에 가서 보면 톱밥, 생석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벌써 굉장히 오래된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방법을 가지고 계속 답습해 가면서 근본적인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서 보면 너무 허술해요, 제가 봤을 때 방역하는 게.

그렇게 하고, 아까 보고에는, 이게 평택까지 왔다가 울산까지 번진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김낙성 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번지는 이유가, 아까 보고는 시가의 100%를 보상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김낙성 위원** 그런데 시가의 100% 보상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먼저 나가지는 않는다, 시가보다 적게 주니까 시가를 받으려고 이것 갖다 내다 파는 거거든요. 아까 장관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빼돌린다는 얘기했는데, 시가라고 보는 것이 농림부가 보는 시가하고 생산·축산농가가 보는 시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말은 넉넉히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안 주니까 이것 빼돌리지요, 제값 받으려고. 빼돌리는 이유가 뭐니까? 제값 받으려고 빼돌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이것 시가 다 주는 데도 그런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 빼돌리지요. 누가 막습니까, 빼돌리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다 협의해서 지금 그 결정을 하고 있고요.

○**김낙성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이뤄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12월부터 3월, 석 달이나 넉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

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산란계 이외에는 미리 정부가 수매를 해 가지고 비축을 했다가 이것을 시중에 판다든가, 좀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이런 방법도 예산도 절감하고 농가 피해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발생했을 때 많은 국비 들여 가지고 보상 주고 매몰해 가지고 수질·토양 오염시키고 말이지, 수만 명 수십만 명 인력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것을 반복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도 벌써 발생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12월 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계장에 있는 것을 전부 수매, 비축해 가지고 1월·2월·3월 팔고 3월 이후에 산란계 가지고 산란해 가지고 입식을 하든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매번 이렇게…… 나는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하여튼 철저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낙성 위원** 그렇게 하고,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자금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조류독감이 거쳐 가면 생계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사이클을 맞춰 가지고 다시 입식을 넣으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미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았고 여러 가지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을 못 갚으니까 부도나고 양계업자 밤중에 출행랑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 사람 또 절단난다 그 얘지요. 그것 가지고 석 달, 6개월 이것 생계비 줘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한 번 걸리면 그럴 것 아닙니까? 이자 갚아야 하고 원금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면 결국 부도내고 출행랑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심도 있게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서 상시방역시스템을 하고 양계·축산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양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발병했을 때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이게 과연…… 매번 이것 반복적으로 겪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전북에 있어서 전남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격리수용이라든가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하는지 국민들에게도 이것 좀 알려 주고……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거의 다 회복됐습니다.

○**김낙성 위원** 보고에 집어넣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고 한마디도 없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아니요, 완전히 회복이……

○**김낙성 위원** 아니, 가축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사람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않는다고 그러면 정말 농림수산물부가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국민건강 생각 않는 것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감각해서 그런 것인지, 면역이 돼서 그런 것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그것은 사람이니까 질병관리본부 소관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주의. 그런데 계속 보고받은 바로는 감기몸살로 판정돼서 지금 다 회복됐습니다.

○**김낙성 위원** 식품 같은 것은 검역을 생산서부터 끝까지 농림수산물부가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질병은 이게 가축으로부터 발생했는데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사람 질병이기 때문에……

○**김낙성 위원** 그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 아까 보고 있었는데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관광업소에 손님이 끊겨 가지고 지금 파리 날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우리 담당 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낙성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농림수산물부수산정책실어업자원관 손재학** 특별법에서 지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간접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낙성 위원** 그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농림수산물부수산정책실어업자원관 손재학**

지금 법은 6월 15일 날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있습니다.

○**김낙성 위원** 내년은 가야 이게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까?

○**농림수산물부수산정책실어업자원관 손재학** 그렇습니다.

○**김낙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청문회까지 안 가고 통상의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따져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 때 자세한 내용들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개략적인 얘기를 좀, 장관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만 들려 주세요. 지금 소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송아지값 그렇고……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양쪽으로, 생산의 품질 고급화하고 소비 촉진하고 양면을 함께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런데 청문회를 불가피, 피할 수 없게 열게 되는데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장관님의 소신과 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서 농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제가 현장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계진 위원** 장관님은 참다래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관이 되어서 가지고 농정에 대한 소신을 펴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과연 정말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라면 말이지요,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완화조치, 그 협상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농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우리는 이런 조건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1년이라도, 1년 후나 또는 2년 후, 그런 예고를 해 놓고 오늘 나왔던 축산업 발전대책 이런 것을 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 볼 테니까 농민들이 믿어 달라, 그리고 나중에 2년 후에 이러한 협상을 했을 때 어렵더라도 농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고 이겨 나갈 수 있게 좀 힘을 합쳐 보자 이렇게 설득하고 나갔어야지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일을 저질러 놓고 이런 축산업 발전대책을 내놨을 때 농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당정협의 기회가 있어서 저도 거기 갔었지요. 당정협의를 했으면 거기서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 것을 반영을 좀 해야 될 텐데 완전히 정부에서 세운 내용을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시간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하고 당하고 협의를 한 후에 내용이 무엇이 달라졌었습니까? 대책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협의한 뒤에, 당과 협의한 뒤에 발표할 때 무엇 무엇을 참고해서 발표했습니까? 그 인쇄물을 그냥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번 청문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 쇠고기는 이미 개방이 됐고요, 다만 이번에 협상을 한 것은 위생 검역 협상이기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죽 이어져 온 과정에서, 이게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 작년 5월부터 막혀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몇 번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것은 어떤 FTA나 DDA 협상하고는 달리 위생검역 조건을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계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시켜 준 것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순서가 바뀌었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정말 실용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조치라는 것을 농민이 느끼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가지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정보리의 사료 대체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정보리를 무척 주장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사료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지금 그것은 사료값 폭등에 대한 대책도 되면서요……

○**이계진 위원** ‘사료비 절감대책 적극 추진’의 맨 위에 나온 게 청보리 재배 면적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겨울에 노는 땅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계진 위원** 아니, 겨울에 노는 땅 얘기하고 앉아 있을 시간은 없고, 지금 사료 값이 얼마나 올라서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그렇고 다 사료값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데 노는 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청보리 재배라는 게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그렇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또 청보리만 고집을 하는지, 제가 그날 당정협의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료 곡물로 대체할 수 있는 곡물 종류가 청보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지금 그 외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옥수수 사료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매 확보랄지……

○**이계진 위원** 국정감사 할 때부터 얘기를 해왔고, 장관은 그 뒤에 바뀌었지만, 그것을 이제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런 것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사료 구매자금 1조 원, 그냥 주는 것 같아도 연리 3%로 꾸 주는 것 아니에요, 농신보 특례보증 4월 2일부터, 그다음에 수입사료의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8월 말에서 11월 말, 이것을 보면 금년만 잘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면 한시적인 이런 생각이 괜찮아요.

그러면 금년 말이면 이 상황이 끝날까요? 이런 계획을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권오을 위원장, 서재관 위원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지만 한두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산지합동단속반 발대식 개최 성과를 보면 여기 농식품부, 농관원, 식약청, 서울시, 죽 썬 놓고 맨 뒤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1000여 명……

이 구성원이 정말 절박한 사람들로 나와서 했다고 이 구성원들의 성향 분석하면 자신 있습니까? 보여 주기 식으로 발대식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과를 보면 이런 성과가 정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참 좋지요. 희망사항에 불과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과거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의 뜻도 이렇지 않을 거예요. 뭔가 화끈하게 하기를 정말 바랄 거예요. 그때그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책 세워 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시름을 과연 달랠 수 있느냐, 이게 시름 달래는 차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 확실한 근본대책을 세워,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확실한 근본대책을 세워야지요, 대충 달래고 연말까지 가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이것 안 됩니다. 나는 같은 여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협조 못 합니다.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이번에 축산단체가 가장 첫 번째 원하는 사항이 소비지의 원산지, 한우는 한우대로 팔자는 것만 제대로 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2, 3개월 전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단속권을 식약청에서 우리 품관원으로 넘어오는 입법화를 하고요, 소비지에서 확실하게 좀 확대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래서 정말 그때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대책…… 농업 전문가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자 갖다 놓고 말 잘하는 분 갖다 놓지 뭐 하러 농업 전문가를, 현장을 뛰어 본 분이 장관으로 갔을 때는 농민들이 ‘맞아. 저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고 나중에 정부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똑같은 형태로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농업 현장에 있던 전문가가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나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알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청문회 자리에서 정말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재협상할 건 하겠다고 얘기하고 각오하세요.

그렇게 해 줘야 우리도 같이 설득하고 농민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자고 얘기하지요, 그런 식으로 땀질식 동족방노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알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재관** 이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李康斗 委員** 우리 이계진 위원의 질의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선 농림수산물부가 지금까지의 정책 접근 방법으로는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가 어렵다 하는 근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까지 행정 선상에서 농림부가 해 왔던 정책기조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 갈 때는 이미 때가 늦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해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을 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현장의 농민이, 축산업자들이 또 유통업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뭔지 그것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 세워 놓은 것 보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선상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만은 적어도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 그리고 새로운 장관, 그리고 이제 모두 바뀌야 한다는 어떤 국민적인 요구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정을 새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달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특히 한우의 산지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었는데, 거기다 보니까 사육두수도 증가한 것으로 압니다. 쇠고기 생산량도 매년 증가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수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2003년, 2007년 현재 거의 80% 이상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러한 수입 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암소 가격, 수소 가격 공히 약 10% 이상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덩달

아 돼지 가격도 약 8% 수준으로, 그리고 심지어 육계 산지 가격만 하더라도 5.5%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우리 농림식품부가 제대로 격에 맞는,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사실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생산 면에서의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는 시장의 수요 확대, 또 이를테면 지금 삼겹살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삼겹살이 아닌 저지방 부위 같은 것이 남아돌아 가지고 판매의 균형을 잃어요. 그 부분은 홈쇼핑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했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지금 소비시장의 소비 촉진이 여러 가지 광우병 등등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또 투매현상 이런 등등은 시장에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으면서 생산 면에서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과거의 정책은 생산 면에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유통을 계속 전공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유통까지 포괄해서 양면을 공히 같이 정책적으로 풀어 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李康斗 委員**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안은 결국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쇠고기 수입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난 파장을 줄 것이고, 조금 전에 이계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료값마저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이 상황에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정부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진짜 축산농가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여러 대책 세운다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조는 지금까지 농민들이 들어왔던 만날 정부가 하는 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라도 꼭 부러지게 무언가를 제시해야 돼요.

아까 사료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료 문제

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료값이 이렇게 비싸지면 노는 농지에 우선 사료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꾸자,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면 그 좋은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전 농민들한테 사료를 심어서, 적어도 농사를 짓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를 취해 주면 전 농민들이 사료를 심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료가 결국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농민들의 사료 부담은, 축산농가들의 부담은 훨씬 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도 누누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우만 하더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저도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우리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수출시장마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씩하나씩 풀어 가야 하느냐,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산자단체들끼리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주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서 소비자들이 진짜 한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차별화를 분명히 해 줘 가지고 한우가 맛이 좋고 또 이게 영양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잔뜩,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도 실어 가지고 홍보해서 국민들이 사먹도록 해 주는 것, 이런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면 아무리 수입고기가 어떻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 얼마나 큰 시장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 쇠고기 맛을 보고 나서는 한국 쇠고기만 먹겠다 이런 소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달려들어 가지고 먹살을 붙잡더라도 ‘자, 흥정을 하자’ 해 가지고 그런 길을 열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항상 여러 가지 여건이, 힘이 약하고 만날 달라는 소리만 하는 농림수산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지금까지와는 전연 다른 공격적인 정책을 펴 나가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재관** 이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중식 위원** 안녕하세요. 7일 날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비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1일부터 18일까지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단, 지금 민동석 단장이었던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신중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상길 단장하고 또 누가 가셨던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나머지 포함해서 전부 7명이었습니다.

○**신중식 위원** 7명을 전부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날 협상에 삼계탕 등 우리 한우의 수입 관련해 결론을 못 내렸던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그쪽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청정화까지 포함해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신중식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 단장이 아시겠네요. 미국 측에서 그랬다면서요? ‘한국의 도축장은 위생상태랄지 여러 가지 국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낮 엘리지블(not eligible), 단 한 군데도 엘리지블 포린 이스태블리시먼트(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욕적인 지적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식 위원** 그래요?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예.

○**신중식 위원** 그러면 이제 삼계탕마저…… 지금까지 몇 년째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연도로는 14년이지만……

○**신중식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렇지 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협의가 되어 왔고……

○**신중식 위원** 삼계탕은 민 단장께서 아시는 바

와 같이 아주 집중적으로 고압처리 해 가지고, 냉동해서 고압처리 해 가지고 보내는 건데, AI에 대한 전염성도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여지가 없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 측의 양보를 못 얻어낸 상태고, 또 하나 말이지요, 통상정책관이신가? 여기 보면 미국 FTA가 관보에 등재와 시행은 보통 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시행까지는 대략 1년 정도……

○**신중식 위원** 1년 정도 걸리지요?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예.

○**신중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등재(register)된 시점부터 수입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렇습니다.

○**신중식 위원** 그게 지금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보면 말이지요, 민 단장님께서 농업통상정책관이시고…… All SRM should be excluded from all animal feed, 그러니까 SRM은 무조건 animal feed를 사용할 수 없다…… 쇠고기 문제는 내가 7일날 하겠지만 오늘 AI가 있고 닭고기 문제, 삼계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0개월령이 되지 않는 송아지의 뇌와 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사용하는 사료조치를 의미한다, 송아지의 눈·머리 뼈·척수를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이고 다시 이 닭과 돼지를 송아지의 사료로 먹이는 것까지 허용하는 사료조치를 택한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FDA에서 쇠고기 협상 조건에 맞게 자꾸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아주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지금 강화된 수입위생 조건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지정을 받을 때는 그것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97년 8월달에 시행한 동물 사료 금지조치, 즉 소를 원료로 하는 사료를 다른 소 같은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하는 그것은 시행이 되어 왔고 또 그거로서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받은 거고 지금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물성 사료를 다른 모든 동물, 그러니까 비반추동물, 소가 아닌 염소라든지



이런 동물한테 먹이는 그것까지 금지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위험 통제국가의 지위를 받는 데는 요건은 아니었고 다만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보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받아 놓은 겁니다.

○**신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민 대사하고 이상길 단장님 심야토론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그랬는데, 이상길 단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OIE인가요? 국제검역수역국(OIE)이 WTO 규정보다 상위 개념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규정은?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축산정책단장 이상길** 예, WTO……

○**신중식 위원**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축산정책단장 이상길** 물론 대부분의 국제 규정이 강제 규정이……

○**신중식 위원** 그러니까 당사국 간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각 당사국 간에 국민건강과 또 수입의 여러 가지 조건, 도축 상황, 위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축산정책단장 이상길** 예.

○**신중식 위원** 그렇지요?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축산정책단장 이상길** 예.

○**신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제가 7일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재관** 신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강기갑 위원** 민 수석 좀 나와 보세요. 어차피 질의가 나온 거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날 토론회 때도 언급이 됐는데 수역위원회의 사항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농림수산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런데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수역위원회 총회에서 사료조치를 미국이 강화해야 된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그렇고,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농림수산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예.

○**강기갑 위원** 그래서 캐나다는 2007년도에 사료를 이행을 했지요?

○**농림수산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예.

○**강기갑 위원** 미국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자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이 할 의무가 없다’ 그러는데 수역위원회에서 결정한 근거로 해가지고 마련한 그것도 우리나라가 강제로 지킬 의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미국이 사료조치 이행할 필요 없고 우리가 덤으로 받은 거다, 왜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해요? 토론회 때도 계속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내가 시간이 없어 끝까지 추궁은 안 했는데 2006년, 2007년도 새로운 위생조건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도 미국이 사료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몇 번 약속을 했잖아요. 해 놓고 후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특정 위험물질 다 안 먹이겠다는 게 아니고 뇌하고 척수하고 두 가지만 하겠다는 식으로 저 뒤로 후퇴한 그런 안을 우리가 덤으로 얻은 거라고…… 그것 두 가지 얻으려고 연례제한을 풀었어요?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말이야, 미국의 꼭두각시 답변인지 우리가 검역조건을 지키려고 하는 답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덤으로 받았다’ 그런 답변하지 말라고. 수역위원회 결정사항이 권고에 불과한데, 권고에 불과한데 우리는 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내줬어요, 아무것도 받아온 것도 없이? 삼계탕 14년, 뭐 최근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14년 동안 추궁한 것도 하나 못 받아내는 나라가 미국이 요구한 대로 다 내줘 놓고 덤으로 받은 거라고…… 할 말 있었어요?

○**농림수산물부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그것이 권고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기갑 위원**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거를 다 대라고 하면 다 대고 다 입장을 밝히게 되겠지. GMO 식품도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대 바라, 위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대 바라 그런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의 위생 검역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입장에

서 우리가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지 왜 상대국 쪽에서 자꾸 과학적 근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다 그런 것을 조사하고 보고서 같은 것 가지고도 지금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작년 8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협상을 지연을 시키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2000년이 넘는 위반을 하고 새로운 의혹이 있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소들을 전부 다 도태하고 이런 게 있어도 하나도 위험성이 낮아졌는지, 광우병 관리가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며칠 만에 다 내줘 놓고는, 원산지도 하나도 우리가 어떤 대책도 안 세워 놓고 무시 만만다고 선물 보따리 준다고 급히 해 가지고 다 던져 줘 놓고 자꾸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고요. 청문회 때 내가 이야기할 거지만 오늘 또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들어가시고, 또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권오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AI의 방역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가지고 계속 이게 방역 거기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확산이 됐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오늘 질의는 양계농가들 보상 기준이 지금까지는 보상금이 생산비와 산란 수인데 산란이 270개가 최저고 최대가 330개까지 나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중간지점으로 해 가지고 306개를 그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금 AI가 터져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270개로 하향 조정을 해 버렸다고. 지금 오히려 306개 하다가, 이렇게 절규를 하고 하는데 330개로 올려 줘도 국민들이 지금 위로가 될동말동한데 이것을 이 판에 270개로 하향 조정을 해 버렸다 이 말이지요. 이러니까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계란 평균 가격이 개당 123원이지요?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강기갑 위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AI 때문에 양계농가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장관이 직접 챙겨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110~115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동안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을 할 때 생계안정비나 가축입식비를 보조

또는 용자를 해 줬는데 이것도 대책에서 빠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더 좀 높여서 농가들을 위로를 해 주고 뭔가 대책을 세워 주는 쪽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그것은 안 빠졌습니다. 생계안정자금 1400만 원을 6개월과 3개월 정도, 한 달에 한 220~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강기갑 위원 생계안정비를 지금 주고 있어요?

○농림수산물부장관 정운천 예, 그것 다 계획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러면 그 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빠졌다고 계속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란 개수는……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식품산업 본부장입니다.

○강기갑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안 했으면, 이렇게 하향 조정했으면 그것은 놔두고 앞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할 거냐 아니냐 그 답만 해 주세요.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장 정승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306개를 해 주던 것을 지금에 와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계란 숫자를 지금 306개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50%만 주는 것을 농가들은 100% 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종계 값보다 더 비싸져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 토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장……

○강기갑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생산 기준 개수를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100% 해 달라고 하면 퍼센티지를 조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개수를 이런 식으로 줄여 버리면 다른 것은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처럼, 다른 데서 깎아 먹어 버리는, 한쪽 주머니에 뭘 넣어 주면서 한쪽 주머니에서 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농림수산물부식품산업본부장 정승 하여튼 적당한 보상이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이럴 때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줘 가지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잡아 주세요.

○**농림수산물식품부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은 수산까지도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태안 유류 피해에 대한 건데 이것 지금 26일까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6월 15일날 시행령 공포를 할 거지요? 여기에 지금 특별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원래는 우리가 법을 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피해 주민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에 그냥 일반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태안 정도에는 준수 정도는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도지사 두 분만 들어가고 전부 국무위원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15명 중에 13명이 국무위원입니다. 이는 국무회의지 특위가 아닌 거예요. 전문가도 안 들어갔고 그 태안의 피해 입은 준수도 여기 대책위원회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특위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 때 이것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특위 구성을 이렇게 하면 이것 국무위원회에서도지사 두 사람 불러다 의견 들어 보는 회의지 이게 어떻게 특별대책위원회입니까?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라도 피해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 피해 주민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부 특위로 타는 게 나와 버렸거든, 절차나 그 내용 전체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특위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면 피해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행정 일방주의적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게 어떻게 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공포하기 전에 장관님이 좀 앞에서 가지고 국무총리님을 만나든지, 피해 주민들이 지금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개진해야 되는데 전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을** 정리 좀 하십시오.

○**강기갑 위원** 장관님이 앞서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위원장 권오을** 강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다음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루사하고 매미 때 피해 입은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 어민들이 양식업자들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길이 없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장관님이 한번 살펴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것 우리가 질의도 하고 했으니까 장관님이 한번 살펴서 뭔가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관 위원** 서재관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 2개월 되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들으니까 1차 산업에 머물던 농업, 임업, 수산업을 2·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개방에 대응하겠다,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소위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군 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등 여러 가지 미래 전략과제까지 제시를 하고 계신데 이런 비전 또 계획이 잘 추진이 되어서 정말 장관님 목표대로 살맛나는 농어촌이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 특히 농어민들, 축산민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농림수산위원회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러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축산을 하는 당신들이 정부에 꼭 하고 싶은 구체적인 요망사항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 당국에 요구도 하고 질문도 하겠다. 한번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정말 나는 이렇게 답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소위 농촌발전대책에 만족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 나한테 할 말이 없느냐, 적어도 내가 국회 의원인데…… 그만둘 거니까 내가 얘기해 봐야 별로 힘이 없으니까 할 얘기 없다는 얘기냐” 하

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쳤습니다. 그리고 소 기르고 돼지 기르는 것 접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 저는 아주 심각하게 가슴에 와 닿던데 정말 장관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가 봐야 됩니다. 축산농가 위주로 해서 대통령 가 보셨던데 거기서 지적하신 게 대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농민들의 어려움이 뭔지 현장에 반드시 가 보시고 반드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지 탁상에서 세워지는 대책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두 달 동안 업무 파악도 하셨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 농업의 가장 절실한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변화가 됐는데 현장에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해 가지고 생산을 하더라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취약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재관 위원**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이 되셨다고 보는데 제가 장관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 문제는 생산과 판매 아니겠습니까? 생산을 잘해야 되고 또 판매를 잘해야 농업 이익이 창출되어서 농민들이 살맛나는 농촌이 될 텐데 농업 생산에는 소위 기업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됩니까? 기업 프렌들리 정부, 그래서 성장 동력을 높여서 고성장을 통해서 많은 고용을 하겠다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인데 농촌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생산 부문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서재관 위원** 그런 기업 프렌들리 정신만 가지고 농촌을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농업을 담당하는 장관께서는 기업 프렌들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가 하면 장관께서 발탁된 가장 큰 이유가 성공한 농업 CEO라는 것 때문에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농업 CEO는 농업 생산 현장에서 성공한 CEO가 아니고 소위 유통, 외국산 다래 수입해서 잘 판매해서 CEO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괴리돼 있다, 이반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농업 생산만큼은 기업 프렌들리, 투자와 산출이 거의 이퀄되거나 플러스되는 그런 논리만 가지고 농업 현실을 보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유통 구조가 다단계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생산비 생산 현장에서는 얼마 할 뿐인데 그게 뺏기기 뺏기기 돼서 소비자한테는 얼마에 돌아가는데 그 이익은 유통 상인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농업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구조를 어떻게 개혁해 주느냐, 변화시켜 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농수산물유통공사라든지 또 농협·수협, 유통을 책임져야 할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래도 농업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농민들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서재관 위원** 다음에 수협 경제대표 얘기 아까 존경하는 신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협·수협이 우리 장관님 산하의 관리감독 대상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서재관 위원** 그러면 수협·농협 대표들 선출함에 있어서 임명 절차상 어떤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선거에는 저희가 지금 일체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선거에는 개입 못 하겠지요. 그런데 무슨 추천, 임명 절차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그런 것도 저희가…… 수협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들에 의해서 선출된……

○**서재관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수협 경제대표로 선출된 분이 현직에 있을 때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니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적어도 경제대표로 선출되는데 수협 관계자들 또 그 대상인 어업인들이 과연 공감하겠느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임명 자체에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대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영향력

을 발휘해서 바른 사람이 농협 대표가 되고 수협 대표가 돼서 농민 그리고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적극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시간 다 지났는데 조류 발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쭙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대책을 세우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생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 소위 매물 처분하거든요. 다 땅에 묻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서재관 위원 그러면 어차피 침출수가 생겨납니다. 그렇지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침출수가 생겨나서 그게 흘러 버리면 2차 감염 우려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꼭 이런 방법뿐이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찾아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로 오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매물 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서재관 위원 달리 발전적인 방안을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서재관 위원 이 부분도 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알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주마가편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관님에게 거는 농민들·어민들의 기대가 큼니다. 이제 두 달돼서 업무 파악도 되셨으니까 모쪼록 성공한 장관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장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했지요?

○최규성 위원 예.

○위원장 권오을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최규성 위원 보충질의로 오늘 일정 마

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예, 간단한 겁니다.

장관님 김제에 오셨을 때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용정부이기 때문에 돈 지급하는 것 빨리 빨리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기억나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최규성 위원 그런데 매물 처분 보상금 우리 전북에 배정된 게 345억인데 지금 매물 처분 다 끝났는데 이게 보니까 4분의 1인 94억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지금 저희가 3일에 발생해서 4일에 100억을 선 조치를 해 가지고 50%를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규성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정산 부분이 지급……

○최규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300만 수가 넘는데 그래서 345억인데 일단 매물을 했으면 그냥 대충 반절은 먼저 주고 나머지는 정산하기로 했는데 반절이 아니라 4분의 1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돈 내려 보내면 빨리빨리 안 주고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과비 내려 보내니까 12월에 내려간 게 7월에 농민한테 가더라고. 이것 다시 전북도 감독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돈 지급되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전북도에 배정됐으면 농민 손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전북도 김제시가 병목 현상이 있는 모양인데 바로……

○최규성 위원 그렇지요.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알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농림부에서 내려 보낸 돈 빨리 농민 손에 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생계안정자금도 보면 겨우 2.6억밖에 안 가요, 40 농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만 수 이상 1400만 원 주기로 한 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예.

○최규성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일단 즉각즉각 집행하는 것이, 이것 감독 안 하면 질질 끌고 몇 달 가고 이럽니다, 그 밑에 시군 단체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 수 이상은 그러는데 만약 5000수다 그러면 생계안정자금

얼마 주기로 돼 있습니까?

○농림수산물부 장관 정운천 5000수……

○최규성 위원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아님니다. 다 계산표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정도면 한 700~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를, 그리고 아까 산란계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오래 끌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대책위나 이런 데하고 금방금방 협의해 가지고 아까 좀 여유 있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딱 정해 가지고 매물 처분 끝나면 바로 지급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것 가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빨리 되도록 도와고 협의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예. 강기갑 위원님하고 제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는 계란 개수 부분은 가격, 또 수출 가격도 농장을 조사해 갖고 실제 가격으로 한다면 저는 그런 게 좋다는 거지요. 그게 좋고 100%는 100%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부분이 길게 갈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약간 여유 있게 한나라는 마음을 갖고 빨리 결정을 하고 지급해서 끝장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예, 바로 그렇게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군 단위 공무원들 중앙부처에서 집행이 되는가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대과비 12월 6일에 내려간 돈이 7월에 농민 손에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지역 내의 현실이니까 그 점 유념해서서 집행이……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복도하고 회의해 가지고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서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운천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주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쇠고기 수입 문제는 7일 청문회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청문회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축산농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그날 충실한 청문회가 되고 그다음에 축산 대책이, 그리고 또 아울러 소비자 대책까지도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기갑	권오을	김낙성	김우남
서재관	신중식	우윤근	이강두
이계진	이영호	정세균	조경태
최규성	한광원	홍문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회관

수석전문위원	김인철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심의회관	김병선

○정부측 참석자

농림수산물부장	정운천
장관	정학수
제1차관	박덕배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김재수
기획조정관	방기혁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식품산업본부장	정승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배종하
어업자원관	임광수
국제수산물관	손재학
농업정책국장	하영호
농촌정책국장	박현철
국제농업국장	유병린
	김종진

식량정책단장	이	창	범
유통정책단장	김	영	만
축산정책단장	이	상	길
대변인	김	현	수
감사관	김	홍	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최	도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강	문	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이	기	식
국립종자원장	배	인	태
농촌진흥청장	이	수	화
산림청장	하	영	제
산림청차장	정	광	수
농업연수원장	양	태	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조	학	행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2008. 4. 18 우윤근·장기갑·김낙순·김영덕·노영민·류근찬·박영선·신중식·유선호·이영호·장향숙 의원 발의)

4월 21일 회부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8. 4. 23 이영호·채일병·우윤근·신명·김성곤·서갑원·김동철·김우남·정장선·노영민·이낙연·양형일·김태홍 의원 발의)

4월 24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윤두환 의원 발의)

(2008. 4. 22 윤두환 의원 외 9인 발의)

2008년 4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